

양돈협회 회장단, 한·미 FTA 비준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국내 양돈산업 경쟁력 확보위해 구체적 대책 마련 시급



▲ 김동환 회장을 비롯한 양돈협회 회장단은 지난 4월 11일 서울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대중언론매체를 대상으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비준 반대와 양돈산업 관련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 홍보부 -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4월 11일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한·미 FTA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FTA 협상에서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기간이 당초 미국이 요구했던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타결돼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 심각한 표정으로 FTA 체결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설명하고 있는 김동환 양돈협회장(좌측부터 이병모 부회장, 김동환 회장, 하태식 부회장, 정종극 부회장)



◀ 김동환 회장을 비롯한 이병모, 하태식, 정종극 부회장 등 양돈협회 회장단은 양돈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미 FTA 협상의 '전면 무효' 선언과 국회 비준 저지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는 국내 양돈산업 말살 협상이다”

김동환 양돈협회장을 비롯해 이병모, 하태식, 정종극 부회장 등 회장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 양돈농민 일동은 졸속적으로 타결된 한미 FTA 타결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가 ‘양돈산업’이 될 것임을 심히 우려하며, 양돈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번 한미 FTA 협상의 ‘전면무효’ 선언과 동시에 국회비준 저지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유예기간이 쇠고기(15년), 닭고기(12년) 등 다른 축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이대로 가면 양돈산업이 가장 빨리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현행 관세 하에서 2006년 기준 돼지고기 수입량은 21만554톤(미국산 6만849톤, 29%)으로 전체 소비량 88만5천900여톤의 약 24%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산 돼지고기 자급률은 50% 이하로 떨어져 결국 양돈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돼 수입물량이 증가되면 국산 돼지고기 소비를 잠식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국산 돼지고기 가격의 급속한 하락을 불러와 양돈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회장은 “2005년도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양돈산업의 생산액은 3조8천억원으로 농업부문에서 쌀 다음으로 비중이 높으며, 축산부문에서는 1위인 전락산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시장에서 밀리고, 가축분뇨 처리, 사료가격 폭등, 소모성 질환 등 삼중고로 인해 국내 양돈농가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피해가 예상 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양돈협회는 향후 5년 내에 국내 양돈업이 경쟁국들과 경쟁이 되도록 확실한 지원과 법률적 보장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가 금번 한·미 FTA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 시에 양돈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장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동**